

중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결과보고서

■ 파견대학 정보

대 학 명	저장관광대학교	기숙사비	4000위안/한 학기
파견지역	중국 항저우	기숙사비 납부방법	일시불(O) 분할납부() ※분할납부시 납부횟수를 기재
파견기간	21. 03 .02 - 21. 07 .06	기타비용	

■ 파견자 정보

성 명	△△△	학 과	△△△학과
성 별	여자	학 년	4학년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으로서 상기와 같이 수학하였으며 수학 결과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대학 현황 보고서
2. 교환학생 파견 수기

2021. 07 . 12 .

파견자 : △△△ (서 명)

국제교육교류처장 귀하

대학 현황 보고서

■ 수업

코로나 특수 상황으로 인해 학생이 2명밖에 없어 수업은 주 3회 오전 수업으로만 남쪽 캠퍼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월화수 3월 8시30분-9시50분 1010분-11시30분 수업이었고, 중간에 쉬는시간 20분이 있습니다.

모두 다른 교수님께 배웠으며, 월요일은 중국 설화나 문화를 다룬 중국 이야기를 배우고, 화요일엔 구어수업으로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 수요일은 HSK수업으로 듣기와 모의고사를 주로 풀었습니다.

중국어를 처음 배우는 친구와 같이 들었는데, 수준별 수업이 안 되는 것이 처음엔 서로 불편했지만, 오히려 인원이 적어 교수님께서 개인에 맞는 수업과 숙제를 내주셔서 실력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되었습니다.

월요일엔 시 낭송을 연습해서 1교시엔 주로 발음 교정을 받았고, 2교시엔 중국 설화를 배웠습니다. (그동안 다른 친구는 중국 단어를 배우고 암기했습니다.)

화요일엔 기초 본문을 읽고 일상 구어들을 교수님과 용용해보며 연습했습니다. 쉬운 내용이었지만 중국에서 생활하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며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문장들이었습니다.

수요일엔 수업시간에 듣기 파트를 풀고, 듣기 스크립트를 주시면 혼자 따로 공부해 다음 수업시간에 검사 차원에서 본문을 읽었고, 나머지 독해 파트와 작문 파트는 숙제 또는 수업시간에 풀었습니다. 이미 HSK 5급을 취득한 상태라 저는 6급을 공부했습니다. (나머지 친구는 3급을 공부했습니다.)

교수님들 모두 잘 가르쳐주시고 알아듣기 쉽게 최대한 쉬운 단어로 말씀해주셔서 공부하기 편했습니다.

환경 (위치, 기후, 교통, 주변 편의시설 등)

항저우 3월은 아주 추웠지만 5월부터는 아주 더웠습니다. 항저우는 햇빛이 세기 때문에 선크림이나 양산은 필수였고, 비도 자주 오기 때문에 평소에 모두 우산을 들고 다닙니다.

낮기온은 33도에서 38도 왔다갔다 합니다. 제가 갔을 때는 온 중계도 6-7월에 비가 별로 오지 않았지만, 3월에는 비가 거의 매일 왔습니다.

저장관광대학교는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번화가로 나가려면 지하철을 타야합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잉펑루역으로 버스로 35분 (3위안) 정도 걸리고 택시로 15분 (20위안) 걸립니다. 지하철역까지만 멀고, 번화가나 백화점은 다 근처 역이라 놀러나가기에 편했습니다.

학교 안에는 북쪽, 남쪽 식당이 있고, 가격은 20위안을 넘지 않아 매우 저렴합니다.

기숙사는 북쪽 캠퍼스에 있는데, 북문에는 여러 카페, 빵집, 중국 식당, 한국 식당 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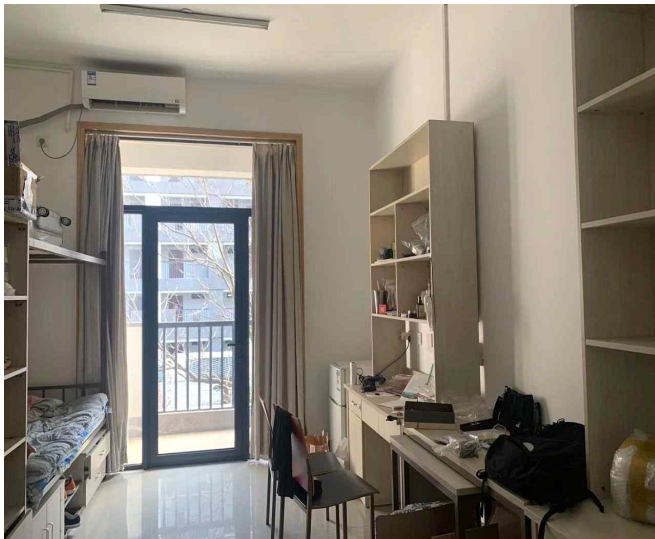
또한 이번에 학교 근처에 백화점이 생겨 큰 마트도 있습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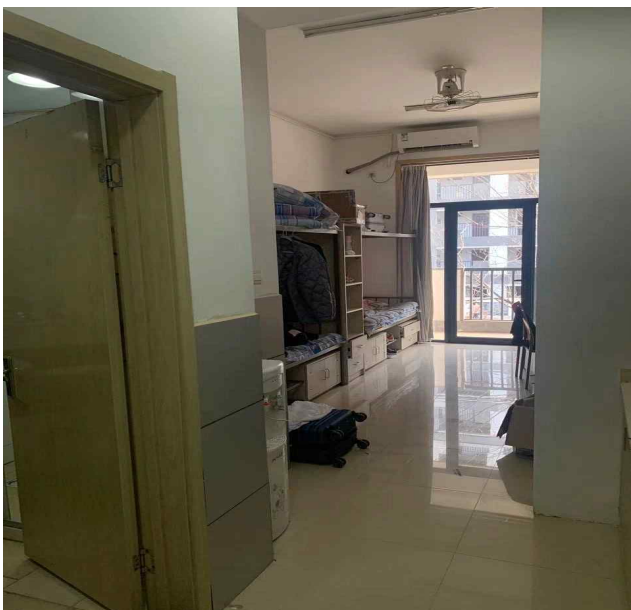
■ 기숙사 정보

비 용	4000위안	내부구조	2인 1실
기숙사 규정 사항	원래 통금시간은 10시 30분인데, 유학생 기숙사에 선생님을 제외하고 학생이 얼마 없어 더 일찍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나갈 때 아주머니랑 마주치면 밤에 한쪽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 외 다른 규정은 없었습니다.		
주인사항	방 열쇠를 받을 때 보증금을 내고 보증금 중이를 받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정해져있고 일정량 외엔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열쇠 보증금에서 제외했습니다.		

■ 기숙사 내부 사진



기숙사는 2인 1실 유학생끼리 사용하고,
침대 두 개 책상 두 개 있습니다.
공간은 넉넉하며 쾌적합니다.
에어컨 겸 히터도 있고,
간이 베란다도 있어 빨래를 널고 했습니다!



사진에는 안보이지만
화장실 앞에 부엌공간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와 인덕션이 있어
요리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세면대도 두 개 있어서
정말 편했습니다!
온수를 사용하려면 학교 카드에
온수를 충전해서
세면대 옆 카드기에 넣고 사용합니다.



한국에서 보통 샤워기 필터를 사오는데
샤워기 필터는 맞으나 세면대 필터는
맞지 않습니다.

사 진 첨 부

대학 현황 보고서

■ 기타 시설 (도서관, 강의실, 식당, 세탁실 등)



북쪽 캠퍼스 강의실 앞에 있는
운동장입니다.
저녁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운동을 합니다.
또한, 바로 옆에 농구장도 있습니다.



강의실 바로 위에 있는
학생 식당입니다.
마라탕, 덮밥, 햄버거 등 음식이 아주 많고
맛도 괜찮았습니다.

사 진 첨 부

세탁기 사진은 없지만,
방 옆에 세탁실이 있긴한데,
위챗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옆동
세탁실을 주로 사용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국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교환학생 파견 수기

중국어에 충분히 많이 배웠지만, 배운 것을 사용할 곳이 없었고, 자격증 위주인 학습이 전부였어서 중국 일상어를 너무 배우고 싶어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라 많이 망설였지만 1년이나 미뤄진 교환학생이 이번이 마지막이라 혼자서라도 가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정말 많았지만, 걱정이 무색해질 정도로 너무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항저우행 비행기도 매주 화요일에만 있어 선택권이 없었고, 가기 전 코로나 검사를 받고, 건강코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도 중국 건강 코드 발급 등 절차가 까다로웠습니다. 비행기에 탑승 후 중국 승무원에 따라 또 건강 코드를 발급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후 코로나 검사를 하고, 중국 의료진들과 왜 왔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등 얘기를 나눕니다. 그 후 여권심사대를 통과한 후 일정 인원이 모일 때까지 대기한 후 다 같이 버스로 이동합니다.

호텔 도착 후 주의사항 종이와 인적사항들을 적고, 방으로 갑니다. 매일 9시, 4시 온도 체크를 하러 의료진이 왔고, 식사는 문 앞에 놓아줬습니다. 2주 후 나가기 전날 코로나 검사를 한 번 더 하고, 다른 호텔로 이동해 똑같이 나가기 전날 코로나 검사를 하고, 격리 해제 날 학교에서 보내준 택시를 타고 학교로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총 3주를 격리를 했습니다.

호텔별로 택배나 와이마이가 되는지는 다르고, 첫 번째 호텔은 식사비가 호텔비용에 포함되었고, 두 번째 호텔은 식사는 자유라 호텔비용이 저렴했습니다. 격리기간 내 물론 많이 답답했지만, 힘들진 않았습니다. (첫 번째 호텔 5320위안, 두 번째 호텔 1666위안)

중국 어플 즈푸바오에 여권정보를 등록해서 건강코드를 발급받습니다. 이 건강코드는 지하철, 백화점, 관광지(ex. 절)를 이용할 때 보여줘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국 정책이 바뀌어 비자가 1년 이하인 사람들은 중국 통장을 만들 수 없어 위챗페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지에 계시는 한국인 선생님이나 중국 친구들에게 부탁하여 현금을 주고 즈푸바오로 돈을 보내주어 즈푸바오로 생활했습니다. 즈푸바오는 중국 통장이 필요 없었고, 카카오페이같은 체계입니다.

또한 중국은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는데, 한국에서 마스크를 많이 챙겨왔지만 다 남았습니다. 일회용 마스크는 중국이 더 저렴하니 kf마스크가 아니면 중국에서 사는 것이 낫습니다.

수업 외 평일에는 기숙사 1층에 북카페와 비슷한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차수업도 틀고, 단오절날 중국인 선생님들과 향주머니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친한 중국인 친구가 그곳에서 일해서 자주 놀러갔습니다.

학교에서 중국 문화 예술 외부 공연을 관람하고, 중국 전통 대나무 우산을 만들어 가서 부채 박물관 관람도 했습니다. 일년에 한 번 하는 항저우 커피 박람회나, 유명한 관광지인 서호, 영은사 등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최대한 밖에 많이 다니려 노력했고, 집에서 쉬는 날엔 중국 드라마나 속제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밖에 나가 중국 현지인들과 자연스럽게 얘기할 기회가 많이 생기니 중국어도 점점 늘었고, 특히나 들기에 약했던 제가 어느 순간 막힘없이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친구들과 서호나, 허팡지에, 근처 맛집 등을 다니면서 중국인 친구가 주로 하는 행동이나 말을 주의깊게 보고 배웠으며 나중에 혼자 다니며 응용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막바지에는 혼자 영화관에 가서 영화도 보고 밥도 먹으며 편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 문화를 몸소 체험할 수 있어 재밌었습니다.

(한국보다 코로나가 심하지 않아 많이 돌아다닐 수 있었고 대중교통에서만 마스크를 썼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는 규제가 막바지에 풀려 다른 곳을 다니지 못한 대신 항저우를 더욱 많이 다녔습니다! 연수 연장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다음에 중국에 또 갈 기회가 생길거라 생각합니다.